

---

## IV. 인슈어테크(InsurTech)의 개념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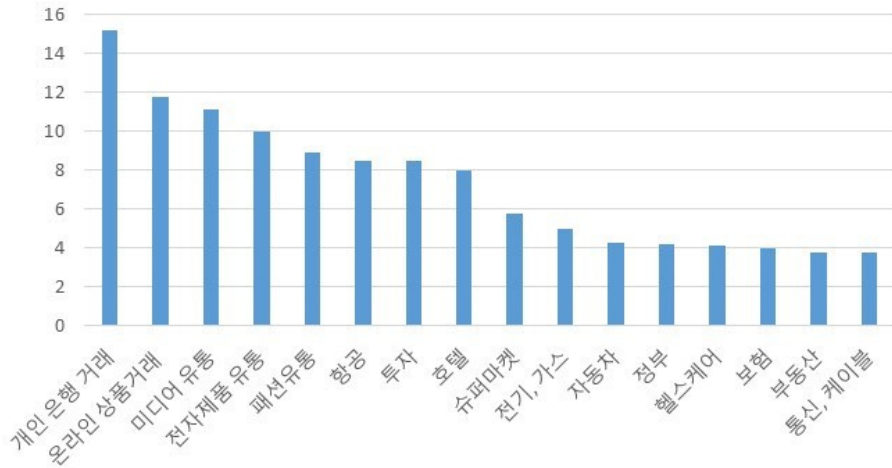
---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금융업도 변화시키고 있다. 초기에 지급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핀테크는 개인 자산관리, 인터넷 전문 은행, 보험 등 부가가치가 더 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보험업에도 혁신의 싹이 트고 있다. 이에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을 뜻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인슈어테크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 정리한다.

### 1. 인슈어테크 개념

보험산업은 금융업 중 가장 보수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가격 결정과 상품설계 과정에서 불확정성이 높고, 보험 계약 체결의 많은 부분이 대면 거래로 직접 만나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입한 MIS를 위한 IT 솔루션과 같은 기술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험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와의 소통 정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림 IV-1>의 2013년 BCG의 설문 자료를 보면, 온라인 소통 만족도 측면에서 보험업은 16개 산업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업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투명성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각종 보험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설립되고 있고, 보험증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용 보험사 앱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IV-1〉 온라인 소통 상대적 만족도



자료: BCG(2013)

인슈어테크에 적용되는 기술이 기존 보험업에 적용되던 기술과 다른 점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닌 보험업의 사업모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의 개념에는 “생태계(ecosystem)”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데, 이는 핀테크나 인슈어테크가 기존에 존재하던 회사의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아닌 소비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모든 시장 참여자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금융업 자체의 개념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슈어테크와 밀접히 관련된 기술로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텔레메틱스·자율주행차·웨어블기기·사용량기반가격결정(UBI), 새로운 보안 거래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결합한 인공지능 등이 있다. 〈표 IV-1〉은 인슈어테크 이전 보험업에서 언급되고 있던 기술과 인슈어테크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표 IV-1〉 인슈어테크 이전에 적용되던 기술과 인슈어테크의 비교

구분	인슈어테크 이전	인슈어테크
목적	기존 보험 서비스의 효율적인 개선	기존 금융기관을 우회하거나 기술을 통해 새로운 보험 생태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수요 충족
주요기업	IBM, SAS와 같은 대형 IT기업	스타트업, 보험사
수익모델	기기판매, 라이선스 비용 등	기본적인 수익 이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다양한 수익기반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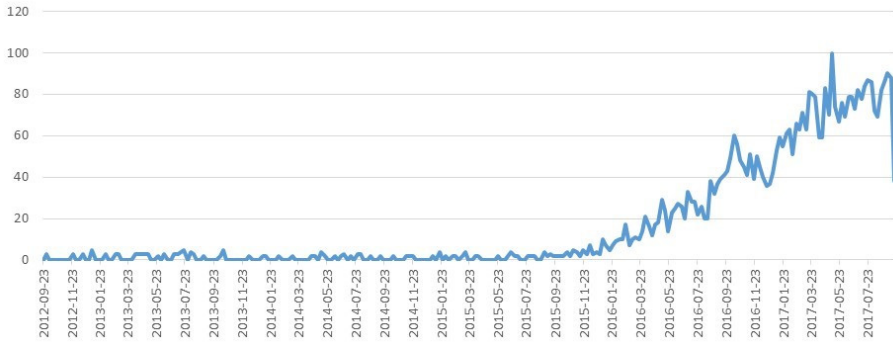
## 2. 시장상황

2010년대가 핀테크의 시작이었다면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2015년도부터 급격히 커졌다. 〈그림 IV-2〉는 인슈어테크를 언급한 기사 빈도를 2012년부터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슈어테크를 언급한 기사 수가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산업의 성장은 벤처 투자 규모 성장에서도 나타난다. 〈표 IV-2〉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261.5백만 달러였던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 투자 규모는 2016년 약 4.5배 증가하여 1,192.7백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관련 기업의 M&A 딜 수도 2016년은 2013년 53건에 비해 1.7배 증가한 91건까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슈어테크 관련 기업활동은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지역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의 FT Partners(2016) 자료를 보면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의 75%가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 서유럽 및 북유럽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4〉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조달 규모 기준으로 배열한 인슈어테크기업들을 보여주는데 중국의 중안보험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 내에서의 대부분 인슈어테크기업들은 건강보험에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인슈어테크 언급 기사 수(2012~2017)



자료: 구글 트렌드

〈표 IV-2〉 글로벌 인슈어테크 벤처 투자 규모와 M&A 딜 추세

연도	투자 금액(백만 달러)	M&A 딜 수
2013	261.5	53
2014	404.3	56
2015	590.2	74
2016	1,192.7	91

자료: KPMG(2017a)

〈표 IV-3〉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 지역 분포

대륙	비율(%)
북아메리카	75
서유럽 · 북유럽	14
아시아 · 태평양	8
남아메리카	2
아프리카	1

자료: FT Partners(2016)

〈표 IV-4〉 인슈어테크 자금조달 규모 상위 기업(2014~2016)

국가	회사	자금조달 규모 (백만 달러)	종류	국가	회사	자금조달 규모 (백만 달러)	종류
중국	ZhongAn Insurance	931	종합	미국	Plan Source	94	건강
미국	Oscar	728	건강	미국	Bright Health	80	건강
미국	Zenefits	584	보증	인도	Policy Bazaar	70	종합
미국	Square Trade	247	건강	스웨덴	Bima	67	생명, 건강
미국	Clover	208	자동차	미국	Jiff	67	건강
미국	Metromile	206	건강	미국	Goji	59	자동차
미국	Accolade	178	건강	미국	Justworks	58	건강
미국	Gusto	161	건강	미국	Cover Hound	57	자동차
미국	Collective Heath	119	건강	미국	Maxwell Health	56	건강
미국	Namely	111	건강	미국	Empyrean	54	건강

자료: FT Partners(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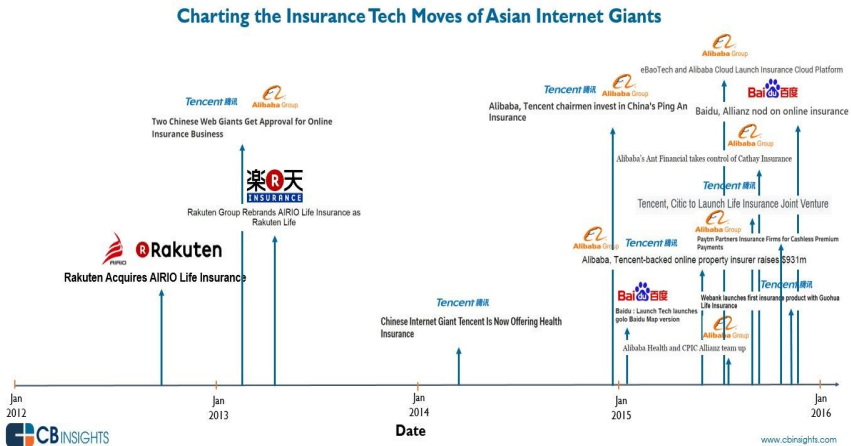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슈어테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다수의 인슈어테크 이전의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IT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혁신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인슈어테크 분야의 초기 진입자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투자축진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에서도 인슈어테크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2015년에는 스타트업 부트캠프 인슈어테크 런던(Startup boot camp InsurTech London)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2017년에도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

슈어테크 산업 초기에는 레모네이드(lemonade), 트로브(trov)와 같이 보험사 가치사슬(value chain)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했지만, 앞으로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는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의 각 분야 - 상품개발, 판매, 인수, 손해사정, 고객서비스 등 - 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험회사들도 진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보험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간 경계를 넘은 투자와 협업도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텔레메틱스, 드론, 그리고 기타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보험업에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기반 대기업들도 경계를 넘어 보험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림 IV-3>은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s), 라쿠텐(Rakuten)과 같은 대규모 IT기업이 인슈어테크와 관련된 각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구글(Google)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이 가격 비교사이트는 곧 문을 닫았다. 하지만 구글의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 아시아 인터넷 대기업들의 인슈어테크 시장 진입



자료: CB Insights(2016. 5. 3)

이에 대응하여 기존 보험업자들은 협업, 파트너십, 벤처 투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때로는 기존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표 IV-5>는 보험시장의 신규 진입하는 주체와 기존 보험사의 대응 전략을 예시와 함께 정리한 표이다.

<표 IV-5> 보험시장 신규 진입 주체와 기존 보험사의 대응 전략

주체		예시
스타트업		Oscar, Lemonade, Trov, Flou, PolicyGenius, Knip
비보험 대기업		Google, Overstock, Rakuten
기존 보험사	협업	AXA와 BlaBlaCar
	파트너십	AXA와 Alibaba
	벤처 투자	Munich Re의 Slice Labs, Next Insurance, Trov, Simpleurance, Blink, Wrisk, So-sure 투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Allianz X 인슈어테크 인큐베이터